

## C.S. 루이스의 넓은 사랑?

오래된 주제에 관한, 독창적 에세이 《네 가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 온한의 말과 함께 오래 전부터 제 생각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이기를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친다”라는 한 현대 작가(M. Denis de Rougemont)의 말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균형을 필용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균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저도 모르게 그 정반대 의미인,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니 드 루즈몽의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최고 정점에 이르면, 스스로 어떤 신적인 권운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들려옵니다. 그 사랑은 온리에게 대가를 계산하지 말라고 말하며, 온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다른 주장들은 모조리 깔아뭉개려 들며, 진심으로 ‘사랑을 온해’ 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합법적이며, 심지어 훌륭한 일이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합니다. 에로스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신이 되기’를 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이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거듭해서 다뤄질 문제이기도, 여기서는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연적 사랑들은 이러한 불경스런 주장을, 최악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최고의 상황, 자연스런 상태일 때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온 ‘순수하고’ ‘고귀한’ 상태일 때 말

입니다. 특히 에로스 사랑의 경은 더온 명백합니다. 신실하고 진정한 자기희생적 열정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저 동물적이고 저급한 온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온망은 자기에게 중독된 이들을 수십 가지 방식들로 타락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저급한 감정에 입각해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감정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가려온을 참지 못해 굶는 사람이 그 가려온증을 존경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여 아이—변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살아 있는 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를 망치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여자의 일시적인 자식사랑 탐닉(실은 자기사랑 탐닉인)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온해 사는’ 어떤 여자의 깊고 편협한 헌신보다는 ‘신이 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또 맥주나 노래에 자극 받아 생기는, 그런 종류의 애국심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큰 해를 (혹은 큰 유익을) 끼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맥주 한 병 더 시켜 마시거나, 크게 노래를 한번 따라 부르고 나면 그런 감정은 온전히 배출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온리가 응당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리의 사랑들이 신성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이 정말로 그럴 만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주장이 그럴듯해지는 것은 그 사랑들과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 사이에 정말로 어떤 유사성이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온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온리의 ‘선물의 사랑’ 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유사하며, 이 선물의 사랑 중에서도 무한정 끊임없이 내어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의 유형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들에 대해 시인들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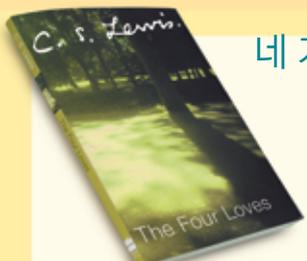
는 말들은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 기쁨, 그 활력, 그 인내, 그 온서하려는 마음, 그 온하는 마음 등. 이 모두는 정말로—가히 온리의 숭배도 받을 만한 하나님 생명의 한 형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온리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유사성은 온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리 자신의(물론, 온조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더디고도 고된 접근과는 어떤 필연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유사성이 참으로 탁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리는 그 유사함(Like)이 동일함(Same)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온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온리의 인간적 사랑들에게 바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들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한 그것 자신도 파멸될 것입니다. 온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온받은 자연적 사랑은 그 사랑 자체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들어가는 말'에서 발췌·인온



© Signe & Arthur Strong

VIII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루이스는 논쟁적인 의제를 옴리가 이미 오래 전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옴리 앞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를 가장 편안하고 탁옴하게 다루고 있다." 클라이드 킬비\_휘튼 칼리지 영문학 교수 · C. S. 루이스 연구가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개척되지 못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 시발점이 되어 준 작품." 루이스 마르코스\_휴스턴 침례대학교 · C. S. 루이스 연구가  
 "그는 이 책을 결코 좀 더 나은 정도로 쓰지 않았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밝게 비추어 주며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들로 번득이고 있다." Church Times  
 C. S. 루이스 지음\_이종태 옴김\_민음의 글들 226\_A5신변형\_238면\_양장\_9,800옴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I 스크루테이프의 변지 II 온진한 기네고 III 고통의 문제 IV 여기저기 온전한 기쁨 V 천국의 사랑의 미온 VI 웨이더 본 옴금 VII 지면사적

# 왜 ‘백투 예루살렘’ 인가?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비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윈 형제·수 형제·예녹 옴이 전하는 놀라움 비전과 옴기

‘백투예루살렘’이란 수천 명의 중국인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일컫는 말이다. 옴리는 적어도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리라.

처음, ‘백투예루살렘 운동’에 관하여 들은 것은 1980년대에 중국에 갔을 때였다. 당시에 한 두 명의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이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그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중국 교회의 열망을 나타내는 정도로 생각했다. ……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중국 각지에서 온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이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꿈꾸며,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도 이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 ‘백투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도시, 마을 그리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지역의 사이에는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였으며, 영적으로 가장 난공불락의 온새인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가 자리하고 있다. …… 2002년, 수많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책, 즉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

기 시작한 이후로 주님이 중국 교회에 주신 계획과 전략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그들이 소원했던 바, 그 열매이다. 작가로서 내 역할이란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즉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형식을 갖춰 글로 소개하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은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온 형제, 수 형제, 그리고 예녹 온이다. 이 세 사람은 중국 교회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며 그 중 두 명은 ‘백투예루살렘’을 온한 선교사 양성과 사역의 효율성을 온해 중국을 벗어나 살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도전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온리 주 온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온노릇” 하기까지 이 마지막 날에 지상명령의 성취를 온해 기도하며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폴 해터옴이/머리말에서



# 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불리며,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슬람권 나라들 불교 그리고 회교권 나라들을 선교하고 계속 서진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중국 지하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 요한과 더불어

전10권 오간

## 6년 2개여에 걸친 예한복음 설교, 《예한과 더불어》 전10권 예간!

6년여간 주일예배 강단에서 선포한 예한복음 설교를,  
다시 6년여간 다듬고 손질하여 드디어 전10권으로  
예성된 설교집 《예한과 더불어》를 내놓는다.

※역순 출간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여한복음을 주님의교회에서 6년 2개여에 걸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매주 주님께서 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설교를 준비하다 홀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 출판을 위해 다시 6년여 간 여고를 기다들여면서 주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물보다 못한 이 미천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여 양떼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글에서

신재철 지신/A5신/각 권 10,000/15,000신



## 오한과 더불어, 완간에 즈음하여



《오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이 발간, 마침내 전10권이 오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 4월 26일 주님의교회 주일 예배시간에 오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지 12년 3개월, 1997년 12월 30일 《오한과 더불어-여덟 번째 산책》이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6년 7개월, 그리고 1998년 6월 21일 주님의교회를 퇴임하면서 오한복음 설교를 마감한 지 6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아옵니다.

**Q1** 첫째, 오 책이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발간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흥성사 편집부가 제게 오한복음 설교집 출판을 제의했던 1997년 당시의 국내 상황은,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임박한 퇴임과 16대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지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그 해 말, 율환위기로 촉발된 소위 'IMF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상실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오한복음 설교집을 당장 내기 율환다면 당시 설교 중인 내용부터 먼저 출간할 것을 흥성사 편집부에 권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설교를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용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교 중이던 내용이 8권, 9권, 10권으로 먼저 출간되었고, 그 뒤 7권에서부터 1권까지 역순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Q2**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엮는데 오 그토록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울전한 울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 전달의 방법이 말인 이상 그 울고는, 상대의 귀에 들려주기 위한 말의 울고였습니다. 반면에 설교집이란 글을 통하여 설교를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설교이지만, 책으로 엮기 위해서는 말의 울고를 글의 울고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투를 문투로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 퇴임 후 3년간 제네바한인교회를 섬기는 등, 분주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모든 울고를 손볼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틈이 나는 대로 울고를 가다듬다 보니, 이제야 울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한복음을 주님의교회에서 6년 2개월에 걸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매주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설교를 준비하다 홀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6년여를 오한과 더불어 산책하는 동안, 백발노인이 되어 오한복음을 기록한 노 사도의 심정으로 말씀과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의 울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 출판을 위해 다시 6년여 간 울고를 가다듬으면서 주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물보다 못한 이 미천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양떼를 어떻게 먹이고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설교집이 제 이름으로 발간되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제가 그분의 도구였음을 밝히는 것일 뿐, 정작 영광 받으실 분은 저를 사울해 주신 제 인생의 주인—주님이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울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미력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제 신명을 다 바쳐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격미달인 저를 전폭적으로 믿어 주시고, 제가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을 설교할 수 있도록 제게 강단을 맡겨 주셨던, 10년 동안 주님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자 울고지 1만 3천여 장에 달하는 전10권의 설교 울고 전량을 타이핑해 주신 이울철·백경애 집사님 부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기꺼이 메울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네 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합니다.

※ 이 글은 《오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 '저자 서문'에서 옮겨 실은 것이다.

#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올바른 인생 행로를 찾아가는 길

##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종종,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 우리는 모호하기만 한 하나님의 뜻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이 하나님에게 친근히 다가서도록,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오래된 오류를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짚어 주고 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간단한 방법?\_기질과 하나님의 뜻\_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_배우자 문제와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정요석 지음 / 믿음의 글들 220 / A5신변형 / 288면 / 9,000원

**정요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아버딘 대학교 토지경제학 석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서초동에 서초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다. 한국 교회 내의 신앙에 관련된 오류를,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홍성사)가 있다.

##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Q1**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다루는 책은 이미 전에도 여러 권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출간된 책들과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책 속에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에 대하여 마치 위인을 대하듯 그 인물의 장점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살핍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성경은 인물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 따른 일희일비(一喜一悲)의 관점이 아닌 본질적인 면에서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 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Q2** 앞서 출간하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와 이 책은 흐름상에서 일정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그러하시지요?

우리나라의 전래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는 자연스레 이 영향을 받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종교가 말하는 기도 형태를 띠어 기도에 남용과 오용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용한 무당과 점쟁이가 천기를 아는 개념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실생활의 예를 통해 쉽게 말한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책 속에서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하나님 뜻 발견에

관련된 오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영력이 센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력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 헌금을 하며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뜻을 남에게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과 자신이 속한 교회와 단체의 안위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이 점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범하는 오류라고 봅니다.

**Q4** 책을 읽다보면 청년들이 애타게 고민하는 결혼과 직업 그리고 크게 보자면 인생의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기를 먼저 보내신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저는 37살에 했으니, 그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심과 불안을 느껴며 얼마나 속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면 우연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를 깨우쳐 주시고 충족시키신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감사와 기쁨이 몸에 배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일은 우리 평생을 통한 싸움인지도 모르지요.

**Q5** 그렇다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분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백투 예루살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비전

BACK TO JERUSALEM



## 이제,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인 '헤브리맨' 원 형제와 수 형제 · 에녹 왕이 전하는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용기와 비전 이야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국 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용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철호(선교한국 상임총무 · 선교사)

"공산주의의 극심한 핍박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가 21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활발하게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을 그 누가 꿈이라도 꾸었겠는가?"

-패트릭 존스톤(세계기도정보) 지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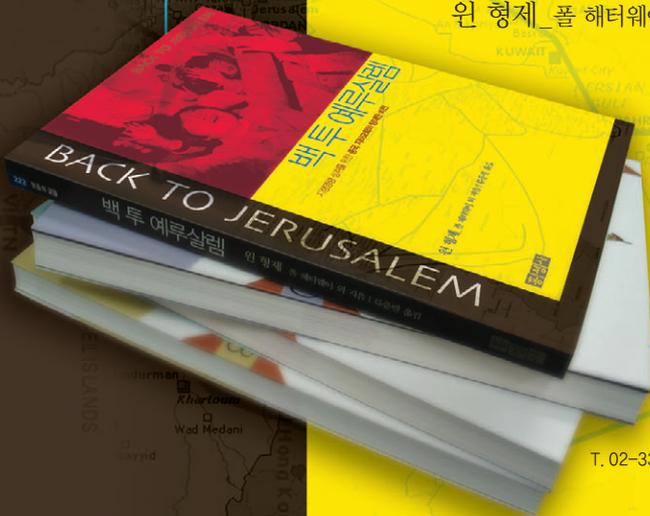
"이 책은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참된 용기와 뜨거운 감정의 고조를 경험하게 해 준다."

-아마존 독자서평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지음/류응렬 옮김

믿음의 글들 222/A5신변형/232면/7,800원/사진수록

**패트릭 존스톤 · 한철호 선교사 추천!**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외 지음



홍성사

###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기적입니다”

**Q1** (백투예루살렘)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어린 딸이 살아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예복 왕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교회 내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수천 명의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외에는 아무 소유도, 열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채워 주십니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대부분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적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기적입니다.

**Q2** (백투예루살렘)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1940년대 백투예루살렘 선교사였던 시몬 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북서쪽 국경을 향하던 시몬 부부와 동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고, 임신한 상태였던 시몬의 아내는 유산하고 몇 년 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시몬은 백투예루살렘 비전이 성취되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 갔습니다. 그는 외로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밤마다 얼굴을 서쪽(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80년대 후반에 중국 동쪽의 지하교회(가정교회)와 시몬을 연결시키시어 남은 생애 10년 동안 새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백투예루살렘 비전을 전하는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Q3**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백투예루살렘 비전으로 중국의 교회를 일으키신 이유가, 지난 50여 년간 중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중국에 고립되어 엄청난 핍박을 겪고 고문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서양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처럼 오염되지 않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공산주의자든 힌두교인이든,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백투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처럼 중국에도 교파들이 있는데, 사탄은 항상 공동체 사이, 리더 사이를 이간하려고 애씁니다. 중국 교회가 계속 조각조각 나뉘어 있으면 수천 명의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비전은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백투예루살렘 선교사들이 유능한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 (언어, 선교, 문화, 조직 구성 등의 면에서) 선교 훈련을 받도록, 동시에 그 훈련이 그들의 순수하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온 신자들과 중국의 신자들 간에 진정한 성경적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결과 수백만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Q5** 앞으로 펼쳐질 구체적인 당신의 사역과 방향, 그리고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를 돕는 아시아하베스트선교회([www.asiaharvest.org](http://www.asiaharvest.org)) 대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교회들을 관리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좀더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성경을 발간하고(지금까지 오십만 권 이상),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입술 기형으로 태어난 베트남 아동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는(지금까지 2,300여 명) ‘웃음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 교회들에 축복이 되는 것이며, 중국·베트남·라오스·인도·네팔 등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 EXPERIENCING THE HEART OF JESUS

DAY TWO—HEARING JESUS

TENDING OF THE VOICES

You've heard them. They tell you to sweep your money for a new site. To harness your conviction for an easy deal. To exchange your devotion for a quick thrill.

They whisper. They woo. They taunt. They flatter. They flatter. "Go ahead, it's OK." "Just wait until tomorrow." "Don't worry, no one will know." "How could anyone find out?"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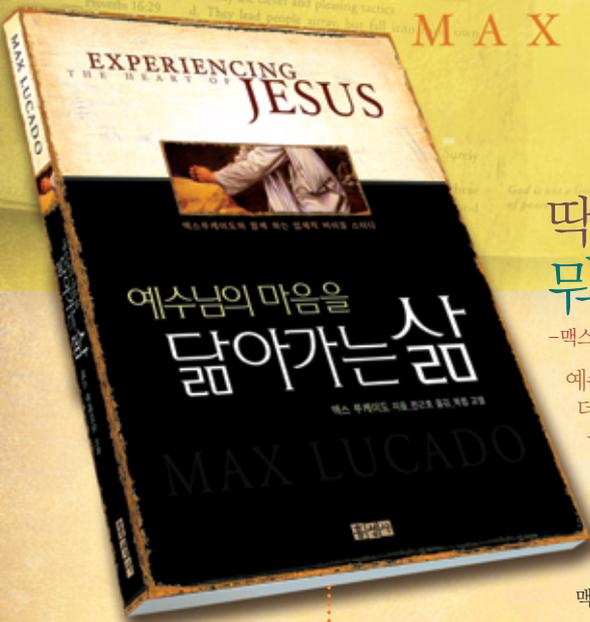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They tempt you.

# 예수님의 마음을 답아가는 삶

MAX LUCADO



## 딱딱한 성경공부 교재 말고 뭐 없을까?

-맥스 룩케이도의 영성과 통찰이 어우러진 입체적 성경공부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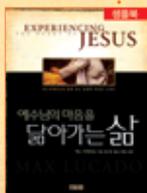
예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도막, 예수님의 인격을 더 깊이 경험하도막, 예수님의 마음을 답아 변화되도막 돕는 입체적 성경공부 교재!

이 책은 딱케이도의 영감 있는 글과 감동적인 일화, 딱케이도 책 인용글, 깊은 성찰막 이끄는 질문, 다양한 성경 번역본 활용, 핵심 정리와 암송 구절 등 입체적인 구성막 성경공부의 흥미를 드높인다. 본문의 글만 읽어도 유익한 책!

맥스 케이도 지음/A4변형/464면/본문2책/25,000원

### 이 책의 활용 포인트

- 인성·공부 :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답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 과씩 읽고 공부하는 개인 교재
- 제자양육 교재 : 목회자 또는 구역장(소그룹 리더)들의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및 연구자력력 활용하는 제자양육 교재
- 설교 예화자 : 맥스 룩케이도의 통찰력 있는 토막글과 감동 있는 일화만 따러 뽑으면 훌륭한 예화 자력 모음



## '샘플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아가는 삶)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팩스 02-335-1559, 이메일 [hsbooks@hsbooks.com](mailto:hsbooks@hsbooks.com)로 신청해 주세요.

# 저자 인터뷰

## Interview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의 저자 맥스 레케이도

### 예수님을 닮기 위해, 너무 바빠서는 안 됩니다.



**Q1** 아마존.com: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열 살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는 다른 길에 가셨더군요?

저는 서부 텍사스에서 자라면서 카우보이, 석유노동자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제게 주말은 술 취하기 위해 있는 날이었죠. 우리는 술통을 사서 차에 몰려 타고 여자들을 찾아다니다》 흠뻑 취하곤 했죠. 저는 아무 생》 없이 여섯 개들이 술 상자를 다 들이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토요일에 그렇게 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갈 수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정말 위선적이었죠.

**Q2** 아마존.com: 언제 돌이키셨어요?

열여덟 살 때였죠. 그때 처음으레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한 친구에게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년 후 내 삶을 그리스도께 새레 바쳤습니다.

**Q3** 아마존.com: (오크 힐 교회 담임목사레) 사역하면서 사레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책을 일 년에 한 권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사레비를 받지 않겠다고 교회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를 모셨고 그 덕에 저는 예산이나 행정 일을 걱정할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느슨한 교회 직원이기도 하고 헌신적인 지원자이기도 하죠. 저한테는 교회 전체 열쇠도 없답니다. 제 사무실 열쇠만 있죠.

**Q4** 아마존.com: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몸으레’ 계신다면 어떤 모습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외모》 빼어나게 두드러지는 앓을 거라고 생》 합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드러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그분의 절대적인 확신 때문에 단호한 면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단호함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주레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실레레 안다면 우리 모두는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주레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으니까요.

**Q5** 아마존.com: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목사님께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어젯밤 수요일에 때 일입니다. 한 방문자》 제게 와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없다고 하자 공손하게 받아들여더군요. 잠시 후 제 영혼을 두드리는 주님을 느끼고 주차장으레》 서 그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했는데, 그는 실직한 데다》》 죽도 떠나 최악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교회에 나간 적이 없는데, 자신이 앞으레 교회에 나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그와 대화할 시간을 내셨을 바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 준 경험이었습니다. -www.amazon.com에서 발췌

번역 · 정리\_한미영 주임(myhan@hsbooks.com)

C.S. Lewis and Freud



“단숨에 읽는 하버드 대 최고 인기강좌!”

# 루이스 Vs 프로이트

신의 존재 · 사랑 · 성 · 인생에 관한 유신자와 무신자의 대논쟁

하버드 최고 인기 강의 '루이스 대 프랑이트: 대립되는 세계관'이 책으로 나왔다! 신의 존재 · 사랑 · 성(性), 인생에 관한, 유신자와 무신자 간의 박진감 넘치기도 명쾌한 대논쟁!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마치 C. S. 루이스와 S. F. 프렛이트가 한 강의실에서 논쟁점들을 하나 하나 논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 보스턴 글러브 *The Boston Globe*

“이 책은 깊이 있으면서도 아주 재미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껏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환상적인 책을 읽을 시간을 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내려놓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 랠프 라슨/존슨앤존슨 회장

아맨드 M. 니콜라이 지음 / 홍승기 옮김 / A5신변형 / 양장 / 16,800원



아맨드 M. 니콜라이 하버드 의대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요 교수였, 각 대학과 의대에서 사용되는 손꼽히는 교재 《하버드 정신의학 가이드》의 편집자이자 공저자이다. 백악관 공중위생국장과 평화봉사단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35년 동안 줄곧 이 강의였 해 왔다. 니콜라이 교수의 강의 때문에 하버드가 끌렸다는 학생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였, 그의 강의는 하버드 학생들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강좌' 란 평가를 받는다.

## 하늘에 속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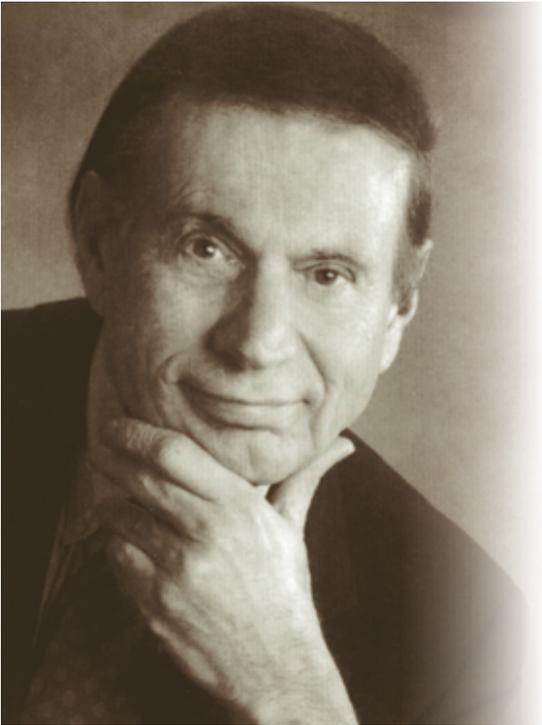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mailto:hsbooks@hsbooks.com)

(레이스 대 프레이트)의 저자 아맨드 M. 니콜라이

### “의심은 영적 순례의 한 과정입니다”



**Q1** 매사추세츠 주 독자: 작년에 박사님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토레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레이스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었지만 프레이트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프레이트가 몇 차례나 진리의 문턱까지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그동안 수강한 학생들에게 진리에 대해, 실재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맨드 니콜라이: 프레이트와 레이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차이,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스는 무신론자였을 때 프레이트 일생 동안 겪었던 염세주의와 절망을 경험했으나 세계관이 변한 후에는 삶을 상당히 낙관적이고 유쾌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천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그의 세계관 선택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준다고 봅니다.

**Q2** 워싱턴 D. C. 독자: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저는 이 문제를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맨드 니콜라이: 예, 그런 질문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하는 질문이고,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제 책과 제 나온 텔레비전 특집방송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Q3** 캔터베리 주 독자: 의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고통도 영적 성장의 다른 요인처럼 필수적인가요?

아맨드 니콜라이: 물론 의심은 영적 순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불안과, 때때 고통도 따례지요.

**Q4** 플레리다 주 독자: 정신분석 의사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사님 부레의 사람들을, 인간의 영혼을 탁자 위에 놓고 해부하는 사람으레 보았기 때문에 영혼학살자들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 확신을 주는 정말레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맨드 니콜라이: 감사합니다.

**Q5** 버지니아 주 독자: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우주의 질서'를 증거레 삼는데, 요즘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질서는 질서가 아니라 혼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맨드 니콜라이: 아마 레이스 우주를 초월한 지성적 존재를 증명한다면 우주의 질서 아니라 복잡·정교함을 증거레 삼았을 겁니다.

번역·정리\_한미영 주임(myhan@hsbooks.com)